

보조용언의 완료 기능설에 대한 재고*

구종남
(전북대학교)

Koo, Jongnam. (2013). Do the auxiliary verbs have the function of perfective aspect?.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1(1), 95-115.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aspectual functions of the auxiliary verbs 'nohta'(놓다), 'dooda(두다)', 'beorida'(버리다) 'naeda'(내다) in Korean. It has been argued that these verbs have the meaning of perfective aspect. But these claims weren't examined fully in aspectual theory, and arguers depend on intuition in judging perfect. So there is no agreement on the items of perfective auxiliary verbs, and there are many phenomena we cannot accept if these verbs have the meaning of perfect. I observed the concept of perfective aspect overall and presented the conditions of perfective aspect based on the aspectual logic, and discussed whether the auxiliary verbs can be perfective forms. And I concluded that these auxiliary verbs cannot have the meaning of perfective aspect, by showing 14 evidences. For the most, these verbs cannot mark terminal point and complete the action in situation type. The reasons why these verbs have been misunderstood as perfective aspectual forms were explained in this paper. And I argued that they just represent modal meanings.

주제어(Key Words): 상(aspect), 완료상(perfective aspect), 완료(perfect), 보조동사(auxiliary verb), 상황유형(situation type), 양태(modality)

1. 문제의 제기

많은 논의에서 보조용언 '(-어) 놓다/두다/버리다/내다/있다', '(-고) 나다/말다/있다', '(-다가) 말다' 등이 완료상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들이 직관상 행동이 끝난 것으로 인식되게 하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사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상(aspect) 이론의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완료상 의미

* 이 논문은 2012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를 나타낸다고 주장된 바 있는 이들 보조용언 중 모든 논자들이 동일하게 완료상 의미를 갖는다고 인정하는 보조용언은 '버리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보조용언의 완료상 주장의 취약성을 보여 준다.

이들 보조용언이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에서 상의 논리에 기초한 근거 제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들도 다양한 예를 고려하지 못했거나 부차적이거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실을 강조하는 등 의미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완료상 주장과 관련, 어떤 논의에서는 몇몇 보조용언이 완료의 의미와 양태적 의미를 모두 나타낸다고 보고, 완료상으로 볼 수 있는 근거와 완료상으로 볼 수 없는 근거를 동시에 제기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일부 보조용언의 완료상 주장설을 펴는 다른 논의에서는 상적 논리에 의하면 모순되는 사실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보조용언의 완료상 기능설과 관련한 혼란에는 언어 내적, 언어 외적 이유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파악하여 논의에서 적극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간의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요컨대 보조용언의 완료상 기능에 관한 논의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미진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언어 형식이 완료상 기능을 갖는지 여부가 확인되기 위해서는 완료상의 개념과 그에 대한 조건 및 특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완료상 형식에 통합될 수 있는 동사는 원칙적으로 완료상의 개념과 모순되지 않는 자질을 가져야 한다. 또한 어떤 언어 형식이 완료상 형식이 되기 위해서는 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리로 이 형식이 완료상 개념과 관련된 조건에 부합된다는 것이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개념과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완료상 형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 동안 완료상(perfective aspect) 표시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되었던 여러 보조용언 중 '놓다', '두다', '버리다', '내다' 등이 실제로 완료상 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완료상의 개념을 검토하여, 전형적인 완료상은 원칙적으로 시작점, 내부 단계, 끝점을 가진 상황의 끝점에서 행동이 완결(종결)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완료상은 내부 시간 구조와 상관없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과 같이 하나로 보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상황의 완결이 완료의 충분조건으로 파악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완료(perfect)는 과거 상황에서 이어지는 현재 관련성을 보여 준다. 즉, 과거와 현재 두 시점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완료상은 시간상, 상황 내부의 시간(과거), 이전 상황에서 결과 되는 상태의 시간(현재(발화시)/기준시), 상황 내부 시간과 외부 시간을 경계 짓는 역할을 하는 상황의 끝점인 완결점을 나타내는 시점, 그리고 발화시(기준시) 이후의 시간(이는 간접적임)이 관여되는데, 이들 시간/시점과 관련된 몇 가지 상적 논리가 성립한다(후술). 본고에서는 완료상의 상적 특성과 이들 상적 논리를 통해 보조용언의 완료상 기능 여부를 논함으로써 보조용언은 완료상 기능을 나타낼 수 없으며, 이들 보조용언의 주 의미 기능은 본동사의 어휘적 의미에서 기인하는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2. 보조용언의 완료상 주장 항목과 근거 검토

2.1. 완료상의 항목 검토

완료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분류된 보조용언은 논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들을 망라하면 앞서 든 바와 같이 ‘(-어) 버리다/놓다/두다/내다/있다’, ‘(-고) 나다/말다/있다’, ‘(-다가) 말다’ 등이다.¹⁾ 이들 중 ‘-아 있다’, ‘-고 있다’는 결과상태상(resultative aspect)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들은 완료 이후의 상태를 나타낸다. 물론 이는 완료와 관련이 있으나 드러나는 국면의 상황이 완료와 다르므로 완료상과는 거리가 있어 별개의 상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²⁾ 행동의 완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가 말다’도 완료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 그 외의 보조용언에 대해서는 이들이 과연 완료적 의미를 지니는지 검증될 필요가 있다. 이들 중 ‘-고’에 통합되는 ‘-나다’, ‘말다’는 이들의 완료상적 기능 여부와 상관없이 ‘-고’가 선행 동사와 후행 동사를 통합 시키는 원리와 기능이 ‘-어’와 다르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놓다, 두다, 버리다, 내다’를 논의 대상으로 이들의 완료상적 기능을 검토하기로 한다.³⁾

2.2. 완료상의 근거 검토

이들 보조용언의 완료상 의미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

-
- 1) 논자에 따라 완료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항목이 각기 다르며 완료상에 대한 명칭도 다르다. 그러나 어떤 명칭을 사용하는 논자들은 그 명칭이 완료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완전히 끝남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는 ‘종결상’이나 ‘끝남’도 완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참고로 기왕 논의에서 제시된 완료 관련 보조용언과 명칭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최현배(1980): 종결(나다, 내다, 버리다).
 서정수(1980): 종결(나다, 내다, 버리다).
 김성화(1990): 종결상(-어 있다, -어 놓다, -어 두다, -어 내다, 버리다/치우다, -고 있다, -고 말다, -고 나다, -다가 말다).
 이관규(1992): 완료(내다, 버리다, 먹다, 치우다, -고 말다), 끝남 강조(버리다).
 고영근(1993): 종결(-고 나다, 내다, 버리다 (-고야) 말다).
 손세모돌(1996): 완료(놓다, 두다, 버리다, 내다).
 이호승(2001): (-어) 버리다, (-어) 두다.
 박덕유(1998): 완료상(-어 있다, -어 버리다, -어 치우다, -어 내다, -어 나다, -어 놓다, -어 두다, -고 있다, -고 말다).
 - 2) 고영근(2006:4)에서는 결과상태상(resultative)은 완료상(perfect)의 함축적 기능 이상은 아니라고 보고 이를 동작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 ‘-어’에 통합되는 ‘치우다’는 그 출현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다른 보조동사에 대한 논의 결과가 ‘치우다’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치우다’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지 않고 직관에 의해 완료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몇몇 논의에서는 이들이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한다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다가 말다’와 이들 보조용언이 결합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점이다(손세모들 1996;168).

- (1) a. *여행 갈 물건을 챙겨 놓다가/두다가 말았다. (손세모들 1996 (1b))
- b. *그녀는 마지막 동에서는 안으로 들어가 버리다가 말았다. (손세모들 1996(2b))
- c. *진걸은 안 선생을 설득해 내다가 말았다. (손세모들 1996 (3b))

‘-다가 말다’는 완료되지 않은 동작을 중단하는 표현인바, 위 문장의 비문법성은 보조용언이 완료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완료 표시의 ‘았’은 다음에서 보듯이 미완 동작의 ‘-다가’와 어울리지 못하는데, (2)가 비문인 이유도 이들 보조용언이 완료의 의미를 갖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 (2) a. *여행갈 물건을 챙겼다가 말았다. (손세모들 1996 (4a))
- b. *그녀는 마지막 동에서는 안으로 들어갔다가 말았다. (손세모들 1996 (4b))
- c. *진걸은 안선생을 설득했다가 말았다. (손세모들 1996 (4c))

둘째, 이들 보조용언은 ‘(-으)면서/며’의 결합 제약을 보인다는 점이다(손세모들 1996;169).

- (3) a. *새로운 이론을 검토해 놓으면서/두면서 논의를 계속한다. (손세모들 1996 (5a))
- b. *밥을 먹어 버리면서 말을 한다. (손세모들 1996 (5b))
- c. *안선생을 설득해 내면서 통사정을 하고 있다. (손세모들 1996 5c))

‘-면서’는 선·후행절의 동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보이는 연결어미다. ‘-면서’의 동시 동작은 이에 선행하는 동사가 ‘았’과 같은 시제 어미를 갖지 않을 때 나타나는데, 위 예에서 ‘-면서’가 통합되는 보조용언이 이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비문이 된다. 그런데도 ‘-면서’가 이들 보조용언과 통합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들이 완료의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완료상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는 보조용언이 결합되는 동사의 상황 전체를 드러낸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즉, ‘버리다’, ‘두다’는 상황 유형의 시작점, 끝점, 내부 단계에서 모두를 드러낸다는 것이다(이호승 2001:230-1).

넷째, ‘버리다’, ‘놓다’ 구문의 경우 이들 문장을 부정하는 문장이 바로 이어서 후행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이들 동사가 완료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증거로 사용되었다. 즉, ‘영수는 새집을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아버님이 부르셔서 다 만들지는 못했다.’, ‘영희는 숙제를 해 놓았다. 그러나 다 하지는 않았다.’는 성립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버리다.’ ‘놓다’가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는 증거라는 것이다(우창현 2006: 293-295).

그러나 제시된 이들 근거는 예문의 적격성 판단이나 완료상의 개념에 의하면 수궁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후술됨). 따라서 보조용언이 완료상을 나타낸다는 의미 있는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⁴⁾

3. 완료상의 개념과 조건 및 특징

3.1. 완료상의 개념

이제 ‘놓다/두다/버리다/내다’ 등 몇몇 보용들의 완료상 기능 여부를 밝히기 위한 논의의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완료상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상(aspect)은 상황의 내적인 시간적 구조/구성(constituency)을 바라보는 상이한 방법이라고 정의된다(Comrie 1976:3). 시제는 상황의 발생 시점이나 이를 파악하는 기준 시점인 상황 외적인 시간과 관계가 있으나 상황 내적인 시간과는 상관이 없다. 반면에 상은 상황 외적 시간과도 관련이 없지는 않으나 이보다는 상황 내적인 시간 구조에 더 크게 관련된다.

Jespersen(1924:286)은 상은 동사 자체의 통상적 의미, 문맥이나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부수적인 동사의 의미, 파생 접사, 시제 형태에 의해 표현된다고 본다. 이 중 앞의 둘은 어휘적 상, 뒤의 둘은 문법적인 상으로 분류된다.⁵⁾ 일반적으로 상을 의미할 때는 문법 형태에 의해 나타나는 상을 가리키며 이는 어휘에 내재적인 상인 어휘상과 구별되는데(Comrie 1996: 6-7), 전자는 상황상이라고 불리고 후자는 관점상이라 불리기도 한다(Smith 1991). 문법적 형태에 의해 나타나는 상은 크게 완료상(perfective)과 미완료상(imperfective)으로 구별된다. 상을 상황 내부의 시간을 보는 방법이라는 정의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상은 상황을 파악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⁶⁾

4) 손세모돌(1996:344)에서는 <번역노걸대>, <번역박통사> 등 중세국어 자료에서 ‘버리다’가 완료 표지인 것에 대응되어 쓰인다는 사실로 중세국어에서도 완료적 의미 기능을 의미의 일부로 갖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또 ‘버리다’는 일선어(日鮮語) 신소설에서 나타내는 보조용언 終了, 了ふ에 대응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버리다’가 완료의 의미를 끝남(완료) 갖는 증거라고 본다(손세모돌(1996:309).

5) 어휘적 상은 aspect와 구별해 동작류(Aktionsart)라 부른다. 상(aspect)은 일정한 문법적 형태가 있어 이것으로 나타내는 문법적인 상을 일컬으며, 동작류는 어휘 자체에 내재하는 어휘적인 상을 일컫는다.

6) 슬라브어에서는 완료상과 미완료상을 구별하는 상이한 문법 형태(표지)가 있다. 즉, 이 언어에서는 문법 형태에 의해 상황의 시간 구조를 보는 방법이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이들 개념은 언어 습득 과정에

상을 상황을 파악하는 방식에 따라 정의하면 완료상은 상황을 이를 구성하는 다양하게 분리된 국면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단일한 전체(single whole)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미완료상은 상황의 내적 구조에 본질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이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Comrie 1976: 16). 여기서 상황을 내적인 구조를 무시하고 단일체로 파악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고 그렇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상황을 이렇게 본다는 것은 상황의 윤곽을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콤프리는 이 점에서 상황을 하나의 점(single point)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설명한다(Comrie 1976: 18). 따라서 상황을 점과 같이 전체적으로 하나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완결된(completed) 것이어야 한다. Comrie(1976: 18)는 완료상은 시작, 중간, 끝을 가진 완전한(complete) 상황을 나타내지만, 굳이 끝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한다. 완료성(perfectivity)의 특징은 완결된 행동(completed action)을 가리키는바, 이 ‘완결된’(complete)이라는 용어가 상황의 끝점(termination)을 크게 강조하지만 완료상은 상황의 어떤 부분보다 상황의 끝(end)을 강조하지 않고 상황의 모든 부분이 단일한 전체(single whole)로 제시된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콤프리가 제시하듯이 완료성의 전형적인 특성(very frequent characteristics)이 완결된(completed) 행동이라고 할 때, 상황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기 위해서는 상황의 끝점에 이르러 행동이 완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상황이 전체적으로 윤곽을 가진 하나의 점과 같은 대상처럼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완료상의 기본 조건은 상황이 끝점에서 완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7)

완료상의 정의에 따르면 완료상은 완전한(complete) 상을 나타내는바, 완료상 형식을 가진 언어는 완료 형식을 통해 완결되지 않은 상황도 완전한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겠지만 완료상 형식을 갖지 않는 언어의 경우는 완료상의 개념에 충실한 한, 끝점에서 완결되는 것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과 같은 것으로 하나로 파악하는 완료상의 개념 조건을 충족시킨다. 콤프리의 주장대로 완료상이 반드시 상황의 끝점에서 완결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끝점에서 완결되는 것은 완료상의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8)

서 이들 형태의 습득과 함께 자연스럽게 파악될 것이다. 이 둘을 구별해 주는 형식이 없는 다른 언어에서는 적어도 완료와 미완료라는 개념은 자동적으로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7) Givon(1984:277)에서는 사건이 시간 축 상에서 완결되(completed)거나, 종료되(terminated)거나, 달성된(accomplished) 경우를 완료라고 한다.

8) 이렇게 상황을 완결된 것으로서 단일체로 보는 상 형식이 존재하는 언어의 경우 항상 이 완료상이 완결점을 가진 상황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완료상의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상황은 완결점을 가진 상황이라고 해도 언어에 따라 상황이 단일체로 인식하는 방식은 다르고 화용론적, 문맥적 조건이 작용하기 때문에 완료상 형식이 완결점을 갖지 않는 다른 상을 나타낼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문맥이나 상황에서 완결점에 대한 파악이나 설정이 모호하거나 주관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결점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쓰인다(예: 영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 끝점에서 완결된 상황은 모두 완료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완결되었다는 것은 그 완결된 행위가 현재 관련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⁹⁾ 즉, 어떤 상황이 완결되었다면 그 결과가 현재에도 영향을 미친다.¹⁰⁾ 이런 사실은 완료를 검증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3.2. 완료상의 조건 및 특징

이제 상황을 전체로 파악하기 위한 충분조건으로서 상황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완료상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문장의 상적 의미는 동작류 혹은 상황 유형과 문법적 상에¹¹⁾ 의해 형성된다. 상황 유형은 상황의 내적 시간 구성의 모습을 보여 주는 기능을 하고 문법상은 상황 유형의 일부분이나 전체를 보여 주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후자는 상 개념이 그러하듯이 상황을 보는 관점의 역할을 한다 (Smith(1991)). 동사는 어휘 의미의 특성에 따라 시간 구성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를 동작류라고 하는데 동사의 이런 특성은 곧 상을 이룬다.¹²⁾ 즉, 동사는 그 내적 시간 구성에서 파악하면 상태성, 지속성, 완성성이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중 어떤 자질을 갖느냐에 따라 상태 동사(크다, 예쁘다), 과정 동사(걷다, 놀다), 완성 동사(닫다, 만들다), 순간 동사(죽다, 치다) 등으로 구별된다. 동작류에 의한 시간 구성은 동사를 벗어나 동사 밖의 논항과 관련지어 파악될 수 있는데 이를 상황 유형(situation type)이라 한다.¹³⁾ 같은 동사라도 문장에서 문장 성분의 차이에 따라 상적 특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¹⁴⁾ 상황 유형은 동작류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법상 형식은 특별한 동작류와 결합 제약을 보인다는 점이다. 예컨대 완료의 문법상 형식은 상태 동사와 결합될 수 없고 순간 동사와의 결합도 제약을 받는다. 완료는 끝점에 이르는 완결 상황을 요구하는데, 이들 동사들에 의한 상황 유형에서는 끝점을 설정할 수 없거나 설정이 곤란한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상황을 완성된 것으로 보아 단일체로 인식하게 하는 명시적인 완료상 형식이 있는 언어의 경우는 완료 형식이 완성 동사와 결합되는 것은 물론이고, 비록 상황 유형에서는 끝점이 설정되지 않는 과정 동사, 때로는 순간 동사 등에도 완료상 형식이 결합되면 상 형식 자체가 끝점을 부여

-
- 9) Comrie(1976:52)의 견해를 따르면 이는 완료(perfect)에 대응된다. 그는 과거 상황의 지속되는 현재 관련성을 perfect라고 한다.
- 10) 예컨대 영어에서 완료형 I have lost my penknife는 비완료형 I lost my penknife와 비교할 때 전자는 penknife가 현재 없다는 것을 함축하지만 후자는 이런 함축이 없다(Comrie 1976: 52). 완료(perfect)가 이전 상황으로부터 결과되는 상태의 시간과 이전 상황의 시간이라는 두 시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완료가 과거 상황의 지속되는 현재 관련성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완료를 시상으로 보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경우도 있다(Comrie 1976:52).
- 11) 국어의 경우는 시제어미, 보조용언, 연결어미 등
- 12) 이처럼 동사 자체의 어휘적 의미에 의한 상을 문법 형태에 의한 상과 구별하여 어휘상이라 한다.
- 13) 상황 유형의 시각적 도식은 이호승(2001:218) 참고.
- 14) 예컨대 '보고서를 썼다'와 '보고서를 다 썼다'를 비교할 때 후자만이 [+완성성]을 갖는다.

하여 상황이 완결되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나 분명한 완료상 형식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언어의 경우는 어떤 언어 형식에 대해 그것이 완료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황이 끝점에서 완결(완성/종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장의 상은 동작류(상황 유형)와 문법적 상 구현 형식(시제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국어에서 어떤 언어 형식이 완료상의 의미를 갖는다면 ‘닫다’, ‘열다’와 같은 결과성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 당연히 끝점에서 상황이 완성됨을 나타낼 것이다. 또한 ‘짓다’, ‘만들다’, ‘쓰다’ 등과 같은 비결과성 완성 동사와 결합해도 상황 유형이 [+완성성]이라는 자질을 갖게 되면 상황의 끝점에서 완결됨을 나타내며, 이는 ‘걷다’, ‘놀다’와 같은 과정 동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때로 ‘치다’, ‘차다’와 같은 순간 동사와도 결합되어 상황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상태 동사는 그 상황 유형상 끝점 설정이 어려우므로 끝점에서 완성, 종결, 달성되었음을 나타낼 수 없어야 한다. 한편 만약 완료의 문법상 형식으로 보이나 그 형식이 정작 완료상 기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상태 동사는 물론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순간 동사, 과정 동사는 물론이고 완성 동사와의¹⁵⁾ 통합에서도 상황의 내적 시간 구조에서 완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상황의 완결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이는 단순히 직관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어 내적인 여러 가지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¹⁶⁾ 본고에서는 이들 보조용언이 완료의 기능을 갖는지를 완료상의 특성과 상적 논리에 의해 증명하고자 한다.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완료(perfect)는 과거 상황에서 이어지는 현재 관련성을 보여 준다. 즉, 과거와 현재 두 시점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완료상은 시간상, 상황 내부의 시간(과거), 이전 상황에서 결과되는 상태의 시간(현재(발화시)/기준시점), 상황 내부의 완결점을 나타내는 시점, 그리고 발화시(기준시) 이후의 시간이 관여되는바, 이들 시간/시점과 관련된 몇 가지 상적 논리가 성립한다. 즉, 완료상의 개념상 완료상 형식은 ①상황의 내부단계를 드러내 보이는 요소와 공기하지 못하고 ②상황의 외부 시간인 발화시 관련 부사가 완료의 동작류(상황 유형)를 수식하지 못하며, ③완결점을 설정할 수 없는 용언과는 공기하지 못하고 ④발화시(기준시) 이후의 행동을 나타내는 요소와는 공기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논리를 통해서 이들 보조용언이 완료상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15) 이는 결과성 완성 동사 및 다른 문장 성분에 의해 완성의 상황 유형을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

16) 상은 매개변인적 성격을 띠므로 이들 증거는 언어에 따라 적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다수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완료상에 대한 부정적 증거와 보조용언의 의미 기능

4.1. 보조용언의 완료상에 대한 부정적 증거

먼저 이들 보조용언이 완료적 기능을 나타낸다고 보는 이전의 주장에서 제시된 4가지 근거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은 사실 보조용언이 완료상을 나타낸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다가 말다’가 완료되지 않은 동작을 나타내는데 이들과 문제의 보조용언이 공기할 수 없기 때문에 완료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것은(손세모돌 1996:168), 사실 ‘놓다/두다/내다’의 경우 이들 예문에서는 좀 부자연스럽지만 이들 보조용언의 양태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수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는 결정적인 증거는 되지 못한다. 다만 ‘버리다’의 예문의 경우는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들어가다’와 관련된 양태적 의미와 문맥 때문이며, ⁽⁷⁾그녀는 쓰레기를 태워 버리다가 말했다., ⁽⁷⁾그는 애써 지은 집을 다시 부숴 버리다가 말고 밖으로 나갔다.에서 보듯이 ‘버리다’는 ‘-다가 말다’와의 결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근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이들 보조용언이 동시동작의 ‘-면서’와 공기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들 보조용언의 완료 의미를 주장하고 있으나(손세모돌 1996:169),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 (4) a. 그가 글씨를 써 놓으면서 자세히 읽어 보라고 한다.
- b. 엄마가 방을 깨끗이 치워 두면서 어지럽히지 말라고 당부했다.
- c. 선희가 돈을 던져 버리면서 소리를 질렀다.
- d. 그녀 혼자 설거지를 해 내면서 불평을 한다.

위에서 보듯이 이들 보조용언이 ‘-면서’와 결합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셋째, ‘버리다’, ‘두다’의 경우 이들이 시작점, 내부 단계, 끝점 등 상황 유형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완료를 나타낼 수 있다는 주장은(이호승 2001:230-1) 완료는 내부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완료의 개념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버리다’, ‘놓다(두다)’ 구문의 경우 이들 문장을 부정하는 문장이 바로 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보조용언이 완료상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도 반증예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동수는 연을 만들어 버린다. 그러나 아버님이 부르셔서 다 만들지는 못한다.’, ‘영희는 숙제를 해 놓는다. 그러나 다 하지는 않는다.’에서 보듯이 보조동사 구문이 ‘았’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이의 부정이 후행할 수 있다. 결국 ‘버렸다’, ‘놓았다’가 쓰인 문장의 경우 선행절이 완료가 되게 하는 것은 ‘았’이라고 할 수 있다. ‘았’ 없이 ‘버리다’, ‘놓

다만으로 완료상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이들 보조용언이 완료적 기능을 나타낸다고 보는 이전의 주장에서 제시된 4가지 근거는 이들 보조용언이 상황이 끝점에서 종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앞서 든 완료상의 시간/시점과 관련된 논리와 완료상의 특성에 따라 ‘놓다/두다/버리다/내다’가 완료상 형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들 보조용언이 완료상을 나타낼 수 없는 근거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이들 보조용언은 진행상 형식과 공기한다.

- (5) a. 철수가 미리 책을 읽어 놓/두고 있다.
 b. 미야가 책을 찢어 버리고 있다.
 c. 진주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내고 있다.

예문에서 ‘-고 있다’는 상황의 내부 시간에서 진행을 나타낸다. 보조용언이 진행상과 공기한다는 사실은 이들이 완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일반적으로 완료는 상황의 끝점에서 상황이 완결되어 내부 단계를 보이지 않고 점과 같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논리적으로 이미 완결된 사태가 상황의 내부 구조를 드러내는 진행형과 공기하는 것이 모순이다. 완료상을 나타내는 완료 형식이 있는 영어와 같은 언어에 완료 진행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이런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의구심을 야기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완료의 개념과 완료형의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완료형은 항상 상황의 종결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completion)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물론 상황의 완결은 완료상의 충분조건이지만 영어의 경우는 완료 의미가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과거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지속 상황의 완료(perfect of persist situation)’는 완결점을 갖지 않는 경우다(Comrie 1967:60).¹⁷⁾ 즉, 완료는 완결을 전제하지만 완료상은 반드시 완결을 전제하지 않으며 나아가 완료 형식은 영어와 같이 진행상과 통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는 각 언어의 완료 형식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¹⁸⁾ 우리가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완료 형식과 무

17) Comrie(1976)에서는 이를 영어 완료형의 특이한 속성이라고 하고 있다.

18) Comrie(1976:53)에서도 ‘완료’란 불리는 모든 형식이 완료 의미를 나타낸다고 오해하지 않아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라틴어는 완료 형식이 완료와 비완료를 포괄하고 이는 불어, 이탈리아어, 루마니아어 등 로만스어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따라서 완료 형식이 모든 언어에서 상과 관련된 동일한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영어는 (일반적으로) perfect가 과거 상황 시간의 명세와 함께 쓰일 수 없으나(*I have got up at five o'clock this morning.) 스페인어에서는 쓰일 수 있고 러시아어에서도 피동 완료에서는 시간 명세가 가능하다. 국어에서는 ‘명회는 5시 30분에 그 책을 다 읽었다.’에서 보듯이 과거 완료와 시간 명세가 가능하다.

또 Comrie(1976:57)에서는 각 언어마다 동일한 사태에 대해 상이한 상 형식이 쓰이는바,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영어의 현재 상태에 대응되어 완료형이 쓰이는 동사가 여럿 있고 스와힐리어에서는 완료 형식이

관하게 완결점을 가진 상황으로서의 완료와 상황 내부의 지속 간의 관계인바, 이들은 공기할 수 없는 것이다.

명시적 완료 형식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국어의 경우 어떤 형식이 완료상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완결점을 갖는 상황을 전형적인 완료로 보고 이런 완료가 보이는 특성으로 완료상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이들 보조용언이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면 이들은 상태의 내부 시간을 보여 주는 진행상과 공기할 수 없어야 한다.¹⁹⁾ 그러나 이들 보조용언은 진행상과 공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 '놓다', '버리다'는 '계속'과 같은 부사와 공기한다.

- (6) a. 주영이가 계속 칠판에 글씨를 써 놓아요.
b. 이로가 계속 서류를 찢어 버려요.
c. 수현이가 바닥을 계속 닦아 내어요.

위에서 '계속'은 상황의 내부 단계의 지속을 나타내는데, 이들 보조용언이 상황의 종결을 나타낸다면 상황의 지속을 나타내는 부사와는 공기할 수 없어야 한다. 완료는 상황의 내부 단계를 보이는 것이 아니다.

세 번째, '놓다', '버리다'는 '계속하다/되다', '지속하다/되다'와 같은 동사와 공기할 수 있다.

- (7) a. 굶은 날씨가 계속되어 놓으니 장사가 안 된다.
b. 동욱이는 축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버린다.

이들 동사는 그 어휘적 의미와 관련된 상황 유형상 상황 내적 시간 구조에 완결과 관련된 끝점이 설정될 수 없다. 이들 보조용언이 완료라면 이런 현상이 설명되지 않는다.²⁰⁾

네 번째, 이들은 '지금'과 공기한다.

- (8) a. 이로가 지금 밥을 한 그릇 먹어 놓아/두어요.
b. 지금 주희가 더러워진 옷을 빨아 내어요/버려요.

자주 영어의 상태 현재로 번역되는 등 언어에서 특정한 상 형식이 다른 언어에서는 상이한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현상이 제시된다.

- 19) '았'이 완료를 나타내는 경우 이는 진행상과 공기할 수 없다. '미자가 책 한 권을 다 읽었다.'는 완료인데, 여기에 진행상이 통합된 '*미자가 책을 한 권 다 읽었고 있었다.'는 비문이다.
20) 물론 '두다', '내다'는 '계속하다'와 공기할 수 있는 문맥이 없는 것 같으나 이는 이들이 완료의 의미 기능을 가져서가 아니라 이들이 '계속하다/지속하다'와 같이 쓰일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c. 민희가 와이셔츠 두 벌을 지금 다려 내어요.

‘지금’은 발화시를 포함하는 시간 부사다. 이들 보조용언이 완료라면 이들은 발화시 이전 상황의 시점과 완료의 결과로 나타나는 발화 시점이라는 두 시점을 관련시킨다. 그런데 ‘지금’은 발화시를 포함하는 시간으로, 완료의 결과 상태 이후의 시간을 나타낸다. 만일 이들 보조용언이 완료라면 ‘지금’을 가진 이들 문장은 성립해서는 안 된다. 이들 문장이 성립한다고 볼 경우 ‘지금’은 동사가 나타내는 상황 유형의 끝점 이전의 내부 시간을 나타내어야 하는데, 이는 ‘지금’이 발화시 포함 시간이라는 사실과 모순되기 때문이다.²¹⁾ 만일 보조용언이 완료를 나타낸다고 할 경우 ‘지금’이 이전 상황에서 결과되는 시간, 즉 발화시를 나타낸다고 보면 이는 실제 선행동사와 관련된 동작류(상황 유형)와는 무관한 공허한 것이 되어 버린다.²²⁾ 이들 예문에 보조용언 대신 ‘았’이 결합되면 완료를 나타내게 되는데, ‘지금’과는 공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들 보조용언이 완료를 나타낼 수 없음을 뒷받침한다.

(9) a. 이로는 {*지금, 방금} 밥 한 그릇을 먹어 놓았다/두었다.

b. {*지금, 방금} 주희가 옷을 빨아 내어 버렸다.

c. {*지금, 방금} 민희가 와이셔츠 두 벌을 다려 내었다.

위에서 완료의 ‘았’이 ‘지금’과는 공기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완료와 ‘지금’이 공기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대신 ‘방금’은 정문을 이루는데, 여기서 ‘방금’은 발화 시간 이전을 의미하는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다섯 번째, 이들은 현재 시제와 결합된다. ‘-는다’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형식이지만 현재 진행을 나타내는 시상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²³⁾ 그런데 완료는 앞서 제시되었듯이 이전 상황의 시간과 이에서 결과되는 사태의 두 시점이 관여된다. 이때 후자의 시점은 기준 시간으로서 국어의 경우 발화시가 현재일 때 외현적으로 명백한 현재 시제 어미로 나타나지 않는다.

(10) 이로가 마당을 다 쓸었다/어요/소/네.

(11) *이로가 마당을 다 쓸었다.

21) 영어에서 now는 현재 완료형에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now가 완결점을 가진 완료에 쓰이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 문제 삼는 완결점을 가진 완료와는 경우가 다르다. 따라서 이 사실이 본고의 주장에 대한 반증에는 되지 않는다.

22) 완료상에서 이전 상황에서 결과된 두 번째 시간(시점)은 사태 이후의 시간은 완료상이 나타내는 상황과 무관한 발화시 같은 것이다.

23) ‘-는다’가 진행의 의미 기능을 가지나 진행의 형태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과거 진행과 같은 것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0)이 완료라고 할 때 완료는 '았'이 나타나고, 결과 상태 시간은 발화시를 나타내는데, 현재 완료의 경우 국어에서는 명시적인 현재 시제는 나타나지 않는다. '-는다'가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고 할 때, (11)에서 알 수 있듯이 완료에서는 외현적인 시제 요소 '-는다'는 쓰일 수 없다. 따라서 'V+놓/두/버리/내 -는다'에서 이들 보조용언이 완료를 나타낸다면 '-는다'는 현재 시제를 나타낼 수 없고 진행을 나타낸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완료상이 상황의 종결점을 갖는다고 보는 한 완료상과 진행상은 공존할 수 없다.²⁴⁾

여섯 번째, 완료는 이전 상황에서 파생된 결과 상태와 관련되는데, 직관적으로 이들 보조용언이 쓰인 문장은 이전 상황에서 파생된 결과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

- (12) a. 동현이가 집을 한 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 살아요.
 b. 동현이가 집을 한 채 지어 놓아요/두어요/내어요/버려요.
 *그래서 거기 살아요.

(12a)에서 보듯이 '았'은 여기서 완료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완료는 상황의 완결로 인하여 이전 상황의 결과를 도출시킨다. 따라서 (12b)에서 후행문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보조용언이 쓰인 문장은 (12b)에서 확인되듯이 완료 후 결과 상태를 도출시킨다고 할 수 없다.

일곱 번째, '버리다' '놓다'는 형용사(있다, 없다 포함), 계사 '이다'에 결합될 수 있다.

- (13) a. 머리가 너무 아파 놓으니/버려서 도저히 거기에 못 가겠더라.
 b. 지키는 사람이 없어 놔서/버려서 누구나 수박 서리를 쉽게 할 수 있었다.
 c. 지갑이 없어 놔서/버려서 아무것도 살 수 없었다.
 d.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이여 놓으니/버려서 지금은 수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예에서 보듯이 주로 접속문에 한정되지만 '놓다', '버리다'는 형용사나 계사에 통합된다.²⁵⁾ 상은 상황의 내적 시간 구조를 보는 방법으로, 형용사 계사 등은 상태성 용언으로서 내적 상황유형에서 시작점과 끝점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완료의 특징으로서 완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놓다', '버리다'는 형용사 계사와 통합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명하다.

여덟 번째, 명령이나 청유에 쓰인다.

24) 이는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V+았고 있었다'가 불가능한 데서 확인된다.
 25) '버리다'는 단문에서도 형용사나 계사와 통합가능하나 '놓다'는 단문에서는 이들에 통합이 불가능하다. '두다', '내다'는 그 의미 특성상 형용사와 계사에 통합될 수 없다.

- (14) a. 이것을 미리 공부해 놓/두어라/자.
 b. 이 차를 팔아 버려라/버리자.
 c. 그 사람한테 빨리 돈을 받아 내라/자.

명령이나 청유에서 문제 삼는 것은 장차의 행위로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미 상황의 내부 시간 구조에서 끝점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완료는 명령이나 청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²⁶⁾ 위에서 보조용언이 완료를 나타낸다고 보는 한 이들 예문의 적격성이 설명되지 않는다.

아홉 번째, 의도 표현인 ‘-려고’ 표현이 가능하다.

- (15) a. 명희가 밥을 지어 놓으려고/두려고 집에 갔다.
 b. 시형이가 물건을 팔아 버리려고 시장에 내 놓았다.
 c. 이로가 화초를 살려 내려고 애를 쓴다.

‘-려고’는 의도를 나타내므로 미래에 실현될 상황 유형과 관련된다. 따라서 내적 시간 구조상에서 종결을 나타내는 요소에 의해 단절될 수 없으므로 보조용언이 완료를 나타낸다면 이들 예문은 비문이 되어야 한다. 고영근(2006: 15)에서는 이 어미를 예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예정은 앞으로의 사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완결된 상황과는 공기할 수 없는 것이다. ‘-려고’ 앞에 시제 어미 ‘았’이 올 수 없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 준다. 이들 보조용언이 ‘-려고 하다’ 앞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은 이들 용언이 완료와는 무관함을 말해 준다.

열 번째, 목적을 나타내는 ‘-게’, ‘-도록’에 이들 보조용언이 결합될 수 있다.

- (16) a. 나물을 다 다듬어 놓게/두게/버리게 이리 가져와.
 b. 주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 내게 도와줘.
 (17) a. 나는 미자가 짐을 다 싸 놓도록/두도록/버리도록 당부를 했다.
 b. 정희는 주희가 그림을 다 그려 내도록 도와주었다.

위에서 ‘-게’, ‘-도록’은 목적을 나타내는 어미인바, 이들은 아직 어떤 상황의 내적 구조에 진입하지 않았음을 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연히 완결된 상황과 결합할 수 없다. 이는 완료의 기능을 수행하는 ‘았’이 통합될 수 없는 사실로도 증명된다.

26) 이들 보조용언은 역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장차의 행동과 관련된 약속법에서도 사용된다.

- (18) a. *나물을 다 다듬었게 이리 가져와.
 b. *주희가 스스로 문제를 풀었게 도와주어라.
 (19) a. *나는 미자가 짐을 다 싣도록 당부를 했다.
 b. *정희는 주희가 그림을 다 그렸도록 도와주었다.

이들 예문에서 ‘았’이 ‘-게’, ‘-도록’을 선행할 수 없다는 것은 이들 접속어미가 끝점에서 상황이 종결되는 완료와는 공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조용언은 이들 어미와 공기한다. 이들이 완료를 나타낸다면 ‘-게/도록’과의 공기가 설명되지 않는다.

열한 번째, 이들 보조용언이 완료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미래에서도 마찬가지다.

- (20) a. 우리가 내일 도착했을 때는 사람들이 벽에 페인트를 다 칠했을 것이다.
 b. *우리가 내일 도착했을 때는 사람들이 벽에 페인트를 다 칠해 놓을/둘/버릴 것이다.

(20a)에서 보듯이 ‘았’은 미래 시점에서 완료를 나타낼 수 있다. 이때 기준 시점은 ‘우리가 내일 도착했을 때’이다. 만일 보조용언이 완료를 나타낸다면 역시 동일한 문맥에서 쓰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b)가 성립하지 않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들 보조용언은 미래 시점에서 완료를 나타내지 못 한다.²⁷⁾

열두 번째, 이미 앞서 주장된 바와 같이 이들 보조용언은 ‘았’과 공기할 수 있다. ‘았’은 과거 시제 요소이며 조건이 맞으면 완료도 나타낼 수 있다.

- (21) a. 주희가 옷을 다 만들었어요.
 b. 철수가 컵에 든 물을 마셨어요.
 c. 아이가 그 문제를 풀었어요.

‘았’이 쓰인 위의 문장은 완료를 나타낸다. 그런데 위 문장에 이들 보조용언이 결합되어도 적격하다.

- (22) a. 주희가 옷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두었어요.
 b. 철수가 컵에 든 물을 한 번에 마셔 버렸어요.
 c. 아이가 그 문제를 풀어 내었어요.

27) ‘버리다’가 기준점이 없는 단순한 미래에서 끝점을 지시할 수 없다는 것은 이호승(2001: 216)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보조용언이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면 완료의 '았'과 이들 보조용언이 공기한다는 것은 완료가 겹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상의 중복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 보조용언은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기 어렵다.

열세 번째, 이들 보조용언의 중복이 가능하다.

- (23) a. 아이들이 바닥을 더럽혀 놓아 버렸다.
 b. 집을 이전해 두어 버리니 마음이 편하다.
 c. 그 아이는 어려운 문제를 금방 풀어 내어 버린다.
 d. 간신히 설득해 내어 놓았더니 왜 탄 소리를 한 거야?

만일 보조용언이 완료를 나타낸다면 이들이 중복된다는 점에서 완료상이 중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동일한 상 중복은 설명되기 어렵다.

열네 번째, 이들 보조용언이 완료상 형식이라면 완료상을 위해 왜 이들을 포함한 완료상 기능을 갖는 것으로 주장된 다른 많은 형식이 존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이들 보조용언이 완료상 형식이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다. 이 외에도 이런 유형의 증거는 더 제시될 수 있다.²⁸⁾ 위에 제시된 것들은 완료상의 개념과 조건에서 결과되는 시간과 관련된 상적 논리로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상황의 내부 단계를 드러내 보이는 요소와 공기하지 못한다는 논리,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상황 외부 시간인 발화시 관련 부사가 완료의 동작류(상황 유형)를 수식하지 못한다는 논리, 일곱 번째는 완결점을 설정할 수 없는 용언과는 공기하지 못한다는 논리, 여덟 번째는 열한 번째까지는 발화시(기준시) 이후의 행동을 나타내는 요소와는 공기하지 못한다는 논리에 관련된 것이다. 한편 열 두 번째부터 열네 번째 것은 언어 경제성과 관련된 것이다. 완료를 위해서 이런 다양한 보조용언이 쓰일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들은 각기 다른 의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8) 손세모돌(1996)에서는 문제의 보조용언이 완료로 보기에 부정적인 증거로서 첫째, 선행 동작이 끝난 뒤 반대의 동작으로 이어지는 경우 '완료'의 '았'을 이들 보조용언이 대체할 수 없는 사실, 둘째, 의도의 중단 표현이 가능하다는 사실, 셋째, 인과관계의 '-(어)서'는 완료의 '았'을 선행 시키지 못하는데 이들 보조용언과 결합 가능하다는 사실, 넷째, '-기 시작하다'와 결합 가능성, 다섯째, 이들 보조동사를 포함한 관형절이 '예정'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이들은 모두 문제가 되는 보조용언들의 완료 의미 가능성을 부정하기에 적절한 근거들이다. 그러나 손세모돌(1996)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조용언을 완료로 볼 수 있는 증거도 제시하고 있는바, 보조용언이 완료적 기능과 다른 양태적 기능을 동시에 갖게 되는 타당한 원리적 설명이 제시되지 않는다.

4.2. 보조용언의 양태적 기능

이들 보조용언이 완료상적 기능을 갖는다고 하는 주장은 크게는 완료상 개념과 상 이론에 기초한 검토가 소홀한 데서 기인하지만 이면에는 나름의 몇 가지 이유와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보조용언은 상적 기능이나 양태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양태적 기능보다는 진행이나 결과 상태상 등과 같이 상적 기능만을 전적으로 나타내는 보조용언이 있다는 점에서 완료상적 기능을 갖는 보조용언이 존재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들 보조용언의 어휘적 의미에서 기인하는 양태 등의 주된 의미가 완료상의 의미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보조용언은 연결어미 ‘-어’와 결합되는데, ‘-어’가 ‘완료’의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도 있듯이(Ramstedt 1939), ‘-어’는 이들 보조용언과 결합할 때 경우에 따라 완료로 이해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한편 이들 보조용언들이 주로 시제 어미 ‘았’을 가진 구문에서 검토되었다는 것도 보조용언의 완료상 주장의 이유가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았’은 경우에 따라 완료를 나타내는데, 보조용언 구문에 나타나는 ‘았’에서 기인되는 완료 의미가 이들 보조용언에서 기인된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가다’, ‘있다’ 등 전적으로 어떤 특정한 상적 기능만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이 있다고 해서 다른 상적 기능을 전담하는 보조용언이 있으라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고, ‘-어’의 기능도 직접적으로는 완료와는 상관이 없다. 또한 보조용언의 기능은 당연히 ‘았’과 결합되지 않는 다양한 환경에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선입견이나 주변적인 영향을 배제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상 이론과 논리로 이들의 상적 기능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보조용언은 선행 용언이 나타내는 어휘적 의미가 문법화되어 변화된 통사적 속성으로 선행동사에 결합하는 방식으로써 본동사에서 추상화된 어원적 의미를 드러낸다.²⁹⁾ 이들은 상과 같은 문법 범주로 발전하기도 하거니와 양태적 의미만을 나타내기도 한다.³⁰⁾ 보조용언도 다른 어휘가 의미 확장을 하듯이 본동사로서의 기본 의미가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확대되어 쓰인다.

29) 이를 문법화 이론에서 어원결정 가설이라고 한다. 이들 보조용언이 완료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식된 것도 이들의 어원적 의미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동사는 기본적으로 윤곽을 가진 사물을 목적 대상 논항으로 삼는다. 이는 상황을 윤곽을 가진 단일체로 파악하는 완료상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경우 문법화의 어원결정 가설을 본동사가 요구하는 논항과 관련된 의미적 특성이 보조용언으로 쓰일 때 그 의미적 특성에도 본동사의 의미 특성에 견인되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완료상의 정의에 의하면 단순히 이러한 인지적인 과정만으로 이들은 완료상이 될 수 없다. 자세한 것은 여기서 논의하지 않는다.

30) 여기서 말하는 양태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양태는 문장에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로 인식 양태, 당위 양태, 동적 양태, 감정 양태, 증거 양태 등이 있다. 편의상 문장을 ‘명제+양태’로 볼 때 보조용언의 의미는 위의 다섯 가지 범주에 포함되기 어렵지만 명제 내용에도 포함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태는 이들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보조용언들은 모두 양태적 의미만을 나타낸다. ‘놓다’, ‘두다’는 본동사의 ‘어떤 곳에 위치시키다’는 어원적 의미로 인하여 기본적으로는 선행 용언이 나타내는 상태를 강조하는 것이고,³¹⁾ ‘버리다’는 본동사의 의미가 棄인지 汚인지 확실치 않으나 이 둘의 의미가 유연성이 있으므로 보조용언의 의미 형성 과정에서 이들이 인지적으로 복합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동사 모두가 부정적인 내포적/함축적 의미를 갖는바, 본동사의 내포적 의미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여 기본적으로는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의 심리를 표출하는 의미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³²⁾

‘내다’의 경우도 ‘생기다’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는 ‘나다’의 사역형 ‘내다’에 내포된 ‘의도적 노력이 개입됨’의 의미가 주 의미로 작용하는 ‘생겨나게 함’의 기본 의미가 크게 작용하여 ‘성취’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³³⁾ 이들 보조용언은 모두 이러한 중심 의미 기능에서 다양하게 파생된 의미 기능을 나타내고 이에서 비롯되는 통사 현상을 보이는바, 이들 보조용언이 나타내는 의미 기능은 상적인 것이 아니고 양태적인 것이다.³⁴⁾

V. 결론

본고에서는 ‘놓다’, ‘두다’, ‘버리다’, ‘내다’ 등 보조용언이 완료상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보조용언이 완료적 기능을 갖는다는 주장은 완료상의 분명한 개념이나 상 논리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점이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보조용언이 완료상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에 상의 내적 논리와 관련된 근거 제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 경우도 다양한 예를 고려하지 못했거나 부차적이거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실을 강조하는 등 의미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하였다. 보조용언의 완료상 기능 여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완료상의 개념과 이의 특성 및 조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전의 논의에서 이런 과정이 중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조용언의 완료상 기능에 관한 논의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미진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완료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이들 보조용언의

31) ‘두다’는 본동사의 의미 자질 중의 하나인 주어의 의도성으로 인하여 통합되는 동사나 의미에서 ‘놓다’와 차이를 보인다.

32) 그러나 ‘버리다’는 문맥에서 다양한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의미가 분화하여 ‘부담의 제거’와 같은 결과적으로는 화자의 긍정적인 심리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

33) 보조용언 ‘내다’는 ‘나다’의 사동사로서 ‘내다’²⁾(naver 국어사전)의 의미에 가까운 것 같다. 본고에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다.

34) 이 중 ‘내다’는 선행 동작의 성취라는 비교적 단순한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의 선행동사와의 통합 제약 현상은 이로 이와 크게 관련된다. 이들 보조용언의 의미 기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이들 보조용언들의 구체적 의미 기능에 대해서는 본고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논의를 피한다.

완료상 기능 여부를 논의했다. 완료상은 내부 시간 구조와 상관없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과 같이 하나로 보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전형적인 완료상은 원칙적으로 시작점, 내부 단계, 끝점을 가진 상황의 끝점에서 행동이 완결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상황의 완결이 완료의 충분조건이 되며, 이는 어떤 언어 형식이 완료상 형식이 되는지를 밝혀 주는 기본조건인 것이다. 그러나 상황의 완결 여부는 직관이 아니라 먼저 상적 논리에 의해 검증되어야 타당성이 확보된다. 본고에서는 완료상에서 결과 되는 시간/시점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4가지 상적 논리를 제시했다. ①상황 내부단계를 드러내 보이는 요소와 공기하지 못한다. ②상황 외부 시간인 발화시 관련 부사가 완료의 동작류(상황 유형)를 수식하지 못한다. ③완결점을 설정할 수 없는 용언과는 공기하지 못한다. ④발화시(기준시) 이후의 행동을 나타내는 요소와는 공기하지 못한다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에 비추어 14가지 근거를 들어 이들 보조용언이 완료를 나타낼 수 없음을 보였다.

보조용언은 본동사가 문법화되어 의미가 추상화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보조용언의 의미는 모두 기본적으로는 본동사의 중심 의미에서 기인하는 추상적인 의미가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며, 이들은 양태적인 의미라고 보았다.

참고문헌

- 고영근. (2006). 동작상에 대한 이해. *한국어학*, 30, 1-30.
- 김종도, 나익주 역. (2001). *문법과 개념화*. 서울: 박이정.
- 남기심. (1978). *국어문법의 시제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 탑출판사.
- 김성화. (1990). *현대국어의 상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 박덕유. (1998). *국어의 동작상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박진호. (2011). 세제, 상, 서법. *국어학*, 60, 289-322.
- 서정수. (1976). 시상형태의 의미 분석. *문법연구*, 3, 83-158.
- 손세모돌. (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신수송, 최석문. (2002). 국어의 진행상과 결과상 표현에 대하여. *국어학*, 39, 77-104.
- 양인석. (1977). Progressive and Perfective Aspect in Korean. *언어*, 2(1), 125-140.
- 우창현. (2003). *상해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문화사.
- 우창현. (2006). 보조용언의 문법상적 기능에 대하여. *한국어학*, 33, 283-307.
- 이기동. (1978). 조동사 '있다'의 의미 연구. *눈피 허응박사 환갑기념 논문집*. 과학사. 359-387.
- 이성하. (1998).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이지양. (1982). 현대국어의 시상형태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51, 177-205.

- 이호승. (2001). 국어의 상 체계와 보조용언의 상적 의미. *국어학*, 38, 209-239.
- 임흥빈. (1975). 부정법 {어}와 상태진술의 {고}. *논문집*, 8. 국민대, 13-36.
- 정태구. (1994). '-어 있다'의 의미와 논항구조. *국어학*, 24, 203-230.
- 최동주. (1950).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현배. (1980).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 한동완. (2000). '-어 있-' 구성의 결합제약에 대하여. *형태론*, 2(2), 257-288.
- Anderson, J. M. (1973). *An essay concerning aspect: Some considerations of a general character arising from the Abbe Darrigol's analysis of the Basque verb*. The Hague: Mouton.
- Bybee, J. L., Perkins, R., & Pagliuca, W.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mrie, B. (1976). *Aspe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hl, O. (1985). *Tense and aspect system*. Oxford: Blackwell.
- Givón, T. (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
- Givón, T. (1984).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1*.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Grimshaw, J. (1990). *Argument structure*. Cambridge: MIT Press.
- Heine, B. (1994). *Grammaticalization as an explanatory parameter*. In W. Pagliuca (Ed.), *Perspectives on grammaticalization* (pp. 255-287). Amsterdam: John Benjamins.
- Jackendoff, R. (1990). *Semantic structures*. Cambridge: MIT Press.
- Jackendoff, R. (1996). The proper treatment of measuring out, telicity and perhaps even quantification in English,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4, 305-354.
- Jespersen, O. (1924). *The philosophy of grammar of English*.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 Klein, W. (1994). *Time in language*. London/New York: Routledge.
- Palmer, F. R. (1974). *The English verb*. London: Longman.
- Rhee, Seongha. (1996). *Semantics of verbs and grammaticalization: The development in Korea from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Seoul: Hankuk Publisher.
- Rothstein, S. (2001). *Predicates and their subjects*.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Smith, C. (1967). *The parameter of aspect*.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Vendler, Z. (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구종남

561-756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664-14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 (063) 270-3171

이메일 : jnkoo@chonbuk.ac.kr

Received on December 31, 2012

Revised version received on February 27, 2013

Accepted on March 8, 2013